



'상당한 가족'은 전무송씨 가족들이 만든 연극이다. 왼쪽부터 전무송·전현아·전진우씨. 연극배우 김남희씨만 전씨의 가족이 아니다.

자, 웃을 준비 되셨나요!

불자배우 전무송씨 연기인생 45년 맞아 시트콤 시도

'웃는 연극-상당한 가족'

'만다라' '동승' '아제아제바라아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굵직한 불교영화는 어김없이 출연해 삶의 구도자라는 명칭을 얻을 정도로 진지하면서도 고뇌하는 연기를 보여준 불자 배우 전무송씨가 색다른 변신을 시도했다. 연기인생 45주년을 맞아 무

우씨는 엉뚱하고 허영에 찬 남편 류시영 역을, 딸 현아씨는 훗날은 아내 이분녀 역을 맡았다. 연출은 사위 김진만씨가 맡아 연출에서 연기까지 온 가족이 하나의 연극 무대에 함께 서는 초유의 공연을 만들어냈다.

1962년 드라마센터 연극아카데미 1기 출신인 전무송씨는 연극 '소'로 연기를 시작했다. 영화 TV 드라마 등으로도 꾸준히 활동했지만 진정한 연극무대에는 1년에 1편 이상 출연하는 등 연극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 왔다.

딸 전현아씨는 SBS '여인천하'에서 급이 역으로 얼굴을 널리 알린 탤런트. 동서 회곡문학 신인작가로 당선되기도 한 현아씨는 '웃는 연극 상당한 가족'의 변안작업도 맡았다.

아들 전진우씨는 서울예술대 연극과를 나와 국립극단에서 활동했다. 연극 '베니스의 상인' '황진이', 뮤지컬 '마녀사냥', 창극 '홍보가', 영화 '팔죽거리 잔혹사' 등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만의 연기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사위 김진만씨는 80년대 드라마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한 아역 탤런트 출신 연출가다.

연출부터 배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만만찮은 면면을 보이는 '웃는 연극 상당한 가족'은 어떤 얘기일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파티에 갔던 남편 시영이 새벽 4시에 귀가한다. 선잠을 깬 아내 분녀의 신경질로 시작된 부부싸움은 운전수 조섭이 분녀 어머니의 부음을 알리러 등장하면서 한바탕 소동으로 바뀐다. 한밤중이라는 특별한 한정적 상황에서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대사와 폭발적이고 과장된 액션은 관객들을 박장대소하게 만든다.

(02)741-6779 김지연 기자



시영에게 장모의 부음을 전하는 조섭.

佛 '마님의 모친상' 변안 온 가족 한 무대에서 공연 과장된 액션 웃음꽃 선사

거울과 고뇌를 털고 가벼운 웃음으로 무장한 채 코미디 연기의 진수를 보여 주는 것이다.

4월 16일까지 대학로 사다리아트센터 세모극장에서 공연하는 '웃는 연극-상당한 가족'은 웃는 연극이라는 의미인 프랑스 소극 '마님의 모친상'을 변안한 작품이다. 시트콤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프랑스 소극의 특징을 그대로 한국 무대로 옮겨왔다.

국내 초연되는 이 작품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배우 전무송과 가족이 모두 출연, 연출하는 첫 번째 작품이라는 데 있다.

전무송씨는 운전수 한조섭 역으로 능청스러운 웃음을 선보이며, 아들 진



산 사에 음악과 꽃, 사진과 한지공예작품들이 가득 넘친다. 의성 고운사, 북한산 심곡암, 양주 옥지장사가 제각각 개성을 드러내며 축제의 장을 가람 안에서 펼친다. 꽃구경도 하고 장엄한 불교의식도 접해보면서 심금을 울리는 음악 속으로 잠겨보면 어떨까.

산사에 울리는 봄 선율

■ 의성 고운사 산사음악회

4월 22일 오후 6시 30분 천년고찰 의성 고운사(주지 혜승)에서 '상생과 화합'을 노래하는 멋진 선율이 울려 퍼진다.

2006 고운사 산사음악회는 개산 1325년을 맞은 고운사가 서예전과 사진전, 개산대제 기념법회 및 위령제, 산사음악회의 세 가지 마당으로 축제가 벌어진다.

22일 하루 열리는 사진전 '구름 따라 바람 따라'는 <인도와 네팔의 불교성지를 돌아보다>의 지은이 성공 스님(비로사 주지),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윤 스님, 영주 북석사 총무 범종 스님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의성과 고운의 만남' 서예전은 의성출신 서예작가들이 일승법계도 등 다양한 서예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오후 2시 오양가 다도문화원의 육법공양으로 시작되는 개산대제 기념법회 및 위령제는 불교어산작법학교(교장 인목)가 호국영령들을 위한 위령제를 진행한다. 대원사 보현합창단, 청량사 마하합창단, 축서사 바라밀합창단 등이 모인 연합합창단의 감미로운 음성공양도 준비된다.

고운사의 첫 산사음악회는 아단법석의 신나는 타악 연주를 시작으로 정음 스님의 성악, 장사의 한영에 정경화 안치환 등 초청 가수의 노래 무대로 펼쳐진다.

■ 옥지장사 창건 준공 축하공연

양주 옥지장사(주지 지원)가 21세기 종합전법도량 준공을 기념하며 '靜·中·動·靜' 공연을 연다. 4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옥지장사 상설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하공연은 댄스뮤직 합작 락 무용 등이 결합된 젊음의 공연이다.

록그룹 홀리건, 코스트윈드밴드, 고구려밴드, 스테라카 국립무용단 등이 펼치는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1997년 4월 개산제를 올린 지 8년 만에 종합전법도량의 사격을 갖춘 것을 기념하는 준공법회가 열린다. 옥지장사는 1만여 평의 대지에 120평 규모의 대웅전, 선재당, 수선당(이상 400평) 등이 들어서 있다. 옥지장사 지원 스님은 "앞으로 100일 철야용맹정진, 2



2004년 심곡암에서 열렸던 산꽃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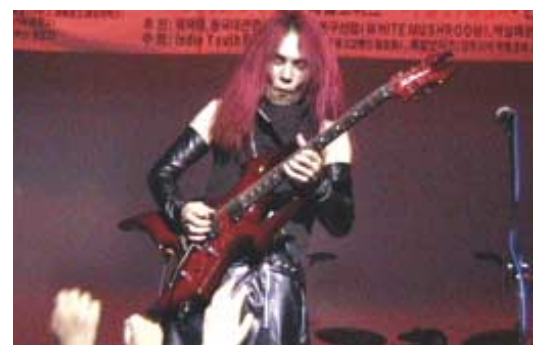
박3일 산사체험, 속뚝체험, 숯가마체험, 특 콘서트, 사진 전시회 등 주5일제 시대를 맞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31)871-0101

■ 심곡암 산꽃축제

북한산 심곡암(주지 원경)이 4월 23일 산사음악회를 시작으로 제7회 심곡암 산꽃축제를 개최한다.

23일 오전 10시 30분 1부 육법공양 및 다도 시연으로 시작되는 산사음악회는 진명 스님의 사회로 2부 무대를 화려하게 선사한다. 심곡암의 천연 바위 무대에서 벌어지는 선율의 향연에는 마음을 노래하는 도신 스님, 국악인 김성녀씨, 불자 가수 이진호·문명하씨, 비올라 연주 김남중씨, 가야금 연주 민소연씨 등이 출연한다.

이날부터 5월 5일까지 자광 스님 한지 공예전도 펼쳐진다. 이어 28일에는 문수전 문수보살 후불량회 집안법회를 병행한다. 문수보살 후불량회는 문수보살의 설법모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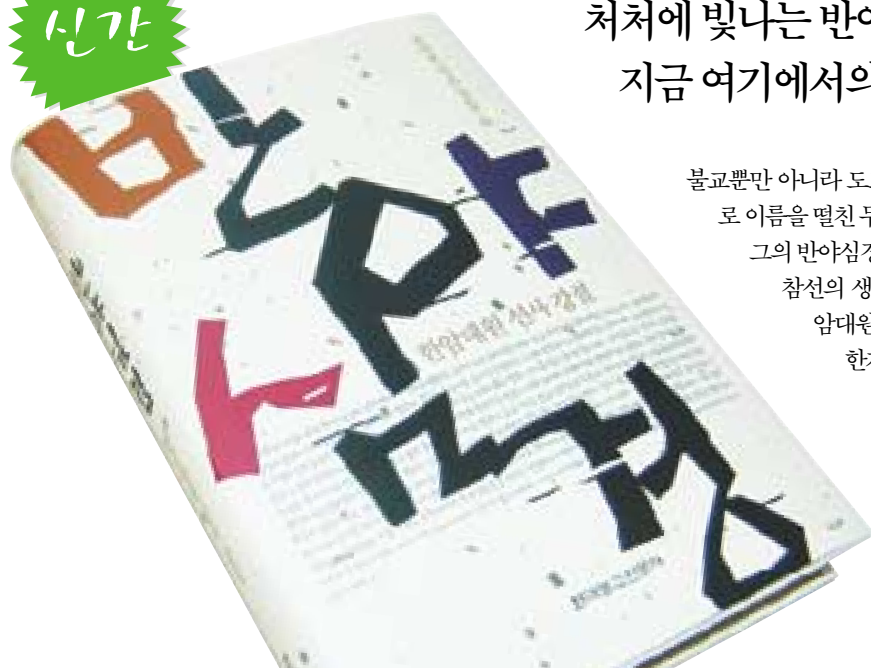
2004년 옥지장사에서 열린 '명상과 함께하는 록 뮤직페스티벌'에서 헤비메탈그룹 블랙홀의 공연 모습. 금화로 표현했다.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에는 관육을 시작으로 봉축법요식, 다도시연 및 봉축 예술제 등이 벌어진다. 산꽃축제의 마지막은 이날 심곡암 일대에서 벌어지는 제등행렬이 맞는다. (02)914-8860 김지연 기자 jiggang@buddhapia.com

현대불교경전시리즈 .01

현대불교신문사

팔만사천 법문의 골수이자 핵심 반야심경 마침내 대중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나다



처처에 빛나는 반야지혜의 눈이 소리 없는 몽둥이를 내리쳐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봄바람을 일으킨다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유교까지를 두루 섭렵, "원전에 매이지 매이지 않는" 반야심경 주해로 이름을 떨친 무구자도인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었고 행적도 묘연했지만, 속장경에 실린 그의 반야심경 주해는 오랜 동안 공부하는 스님들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오동시민 선원을 개원,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이,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곧바로 진리의 법한가운데로 뛰쳐들도록 촉구한다.

한암대원 강설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신국판 / 양장본 / 440쪽 / 값 15,000원

한암대원 선사의

반야심경



조계종 학림사 오동선원
한암대원 關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교봉, 석릉, 관음,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등 전국 계방선원에서 정진,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남자를 위한 오동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 (02)2004-8200(대), (02)2004-8225(출판부), Fax: (02)737-0696